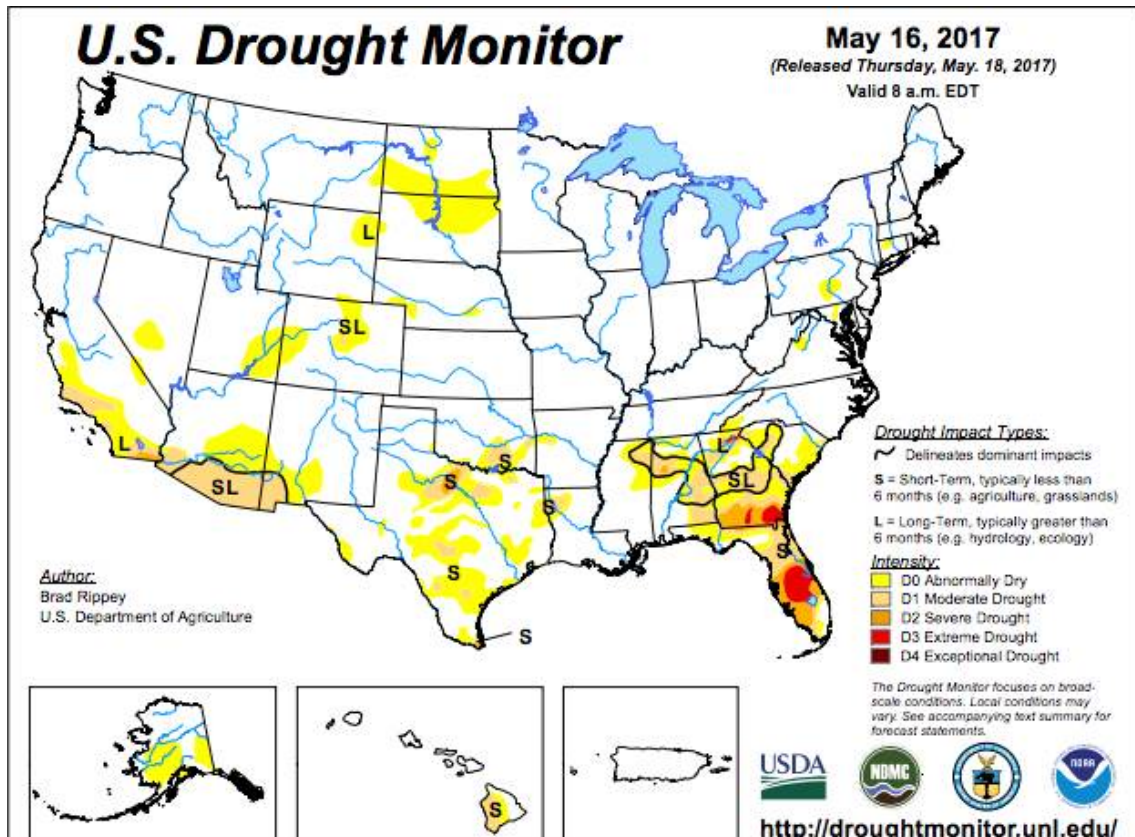


5월 23일 USDA 기후작황보고서(Volume 104, No. 21)

□ 미국 기후 현황(5/14~5/20)

중서부 전역에는 제법 많은 양의 비가 내렸다. 지역에 따라서는 2~4인치 이상의 비가 내리기도 했으며, 미시시피 강 일대에서부터 대서양 연안에 이르는 지역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5~10°F 이상 높았다. 5월 17일부터 19일까지는 반짝 더위가 찾아와 낮 최고기온이 90°F 이상 오르기도 했다. 반면, 지난 주 영하권의 날씨를 보였던 북서부 평원 일대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5°F 정도 낮았다. 로키산맥 중부와 북부에서는 1~3feet 내외의 눈이 내리기도 했다. 북서부에서는 곳에 따라 비가 내리기도 했고, 남서부에서는 대체적으로 맑은 날씨를 보였다. 캘리포니아에서는 맑고 따뜻한 날씨가 이어진 가운데 농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중부와 남부 평원에서도 천둥번개가 치는 등 불안정한 대기가 지나가는 가운데 비가 내렸다. 중서부 북부 지역에서는 강한 바람을 동반한 토네이도가 5월 16~17일 사이에 발생했다. 대서양 연안 남부 지역에서는 비가 내리지 않았고, 일부 지역에서는 가뭄이 심화되고 있다.



□ 농업 현황 요약(5/15~5/21)

동부 절반 이상의 지역에서는 대체적으로 평년에 비해 기온이 높은 날씨가 이어졌고, 대서양 연안 지역과 주요 옥수수 재배지 동부 일대에서는 농작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었다. 인디애나, 켄터키, 노스 캐롤라이나, 오하이오, 테네시, 웨스턴 버지니아 등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6°F 이상 높았다. 반면, 로키산맥 남서부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4°F 이상 낮았다. 강우량은 평년에 비해 1.5인치 정도 많았지만, 곳에 따라서는 이보다 많은 양의 비가 내리기도 했다. 오클라호마 남부에서는 지난 한 주간 8인치 이상의 비가 내렸다.

□ 세계 기후 현황(5/14~5/21)

■ 유럽: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비가 내렸다. 느리게 움직이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스페인 북부에서부터 프랑스 및 영국 등에는 10~65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스페인 북부에서는 봄 가뭄이 계속해서 이어져 온 탓에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프랑스와 영국에서 내린 비는 시의 적절했다. 독일에서는 1~50mm 내외의 비가 내렸고, 동유럽의 1/3이상의 지역에서는 맑은 날씨가 이어졌다. 이들 지역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2~5°C 정도 높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고, 늦여름 작물의 파종작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폴란드 서부와 발칸반도 일대에서는 10~50mm 내외의 비가 내렸고, 이탈리아에서는 Po River 주변으로 2~3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 구소련(서부): 몰도바, 우크라이나 남부와 동부에서는 10~35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반면, 우크라이나 북부와 중부에서는 비가 내리지 않았다. 이들 지역에서는 지난 90일간 내린 비의 양이 평년의 50~70% 수준에 그치고 있다. 러시아 남서부에서는 25~80mm 내외의 비가 내렸고, 남서부에서도 10~3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 동아시아: 중국 북동부에서는 맑은 날씨가 이어졌고, 양쯔강 일대에서는 10~25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보다 남부에서는 25~100mm 내외의 제법 많은 양의 비가 내렸다. 북동부의 서쪽 지역에서는 지난 5월 1일부터 내린 비의 양이 평년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게다가 이들 지역에서는 기온도 평년에 비해 높은 편이며 낮 최고기온은 35°C까지 오르내리고 있다. 일본과 한반도 일대에서도 이례적으로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 호주: 지난주 후반에 내린 비는 주 초반에도 이어져 뉴 사우스 웨일즈 남부와 중부, 빅토리아 북부, 남호주 동부 및 서호주 등에서는 5~30mm 내외, 곳에 따라서는 50mm 이상의 비가 내렸다. 퀸즐랜드 남부와 뉴 사우스 웨일즈 북부의 그 밖의 지역에서는 맑은 날씨를 보였고, 면화 등의 수확작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었다. 이들 지역은 평년 수준의 기온을 유지하고 있다.

■ 아르헨티나: 북부 지역에서는 맑은 날씨가 이어졌다. Salta에서부터 Jujuy, Cordoba 등에서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고, 기온은 평년수준을 유지했다. 낮 최고기온은 20°C 중반까지 오르내렸다. 남부의 La Pampa, Buenos Aires 등에서는 50mm 내외의 비가 내렸고, 곳에 따라서는 100mm 이상의 비가 내리기도 했다. 이번 비로 이들 지역의 옥수수 및 대두



의 수확작업은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다. 아르헨티나 농림부에 따르면 5월 18일 기준 옥수수, 대두의 수확률은 각각 41%, 71%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빠른 편이다.

■ 브라질: 주요 옥수수 및 면화 재배지역에서는 비가 내렸다. Mato Grosso, Goias, Mato Grosso do Sul 등에서는 10~50mm 내외의 비가 내렸고, 낮 최고기온은 30°C 초반에서 중반까지 오르내렸다. 북동부 내륙의 Tocantins, Bahia 서부 등에서는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렸다. 보다 남부의 Minas Gerais, Rio Grande do Sul 등에서는 50~150mm 내외의 비가 내렸는데, 이번 비로 사탕수수의 수확작업은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다. 5월 15일 기준 Parana의 밀 파종률은 55%를 기록했다.